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가톨릭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가톨릭성가 504번> 우리과 함께 주여	<가톨릭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제 1독서 | 스페니아 예언서 2,3: 3,12-13

화답송 |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좌)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우)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1,26-3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5,1-12

오늘의 묵상 |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째서 여덟 개의 '참행복'은 각각 "행복하여라"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배부르고 잘 지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은총의 상태 안에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정진하고 하느님의 길을 따라 정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내와 가난, 다른 이들에 대한 섬김과 위로의 (...)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려고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길을 택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를 선택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는 동방교회의 형제들이 말하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못자국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살아 있고, 죽음을 이겨내어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한 부활의 기쁨입니다. '참행복'은 여러분을 항상 기쁨으로 인도하며, 기쁨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 오늘의 복음 - 마태오 5,1-12

-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 2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도망칠 수 없는 당신> - 박완서 정혜 엘리사벳 작가

오십이 넘어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는데도 지금 생각하니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던 게 아닌가 싶다. 확신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서 일단 세례를 받으면 달라지려니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신자가 되어 달라진다는 게 나에게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에게 아쉬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투명인간 같은 분이 제꺼덕 뒤에서 힘을 써주시려니 했다. 설사 알아서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부르면, 애타게 부르면 도와주시려니 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믿은 분한테서 들은, 주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빠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한 분이라는 소리가 제일 솔깃하게 들렸다. 자식이 울고 불고 보채도 안 들어준다면 엄마 아빠가 아니지 않나.

또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진 않아도 만약 계시다면 당신을 믿겠다고 약속한 신자한테 괜히 별이야 주시지 않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일종의 보험처럼 들어둬서 해로울 게 없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눈여겨보니 아주 열심히 믿거나 누가 보기에든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도 재난이나 불운이 시도 때도 없이 닥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럴 바에야 하느님을 뺏하러 믿나? 있으나 마나한 하느님이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됐다.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자 마침내 하느님이 있긴 어디가 있냐고 포악을 떨기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부정의 고비를 수없이 겪고 난 지금, 적어도 하느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는 소리는 안 하게 됐다. 그동안의 어떤 몸부림도 어떤 저항도 다 그분의 뜻,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의 일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내가 애타게 도움이나 해답을 구할 때마다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남들은 계시나 응답도 잘 받는다는데 나한테는 한번도 그런 신비 체험이 없었다. 그렇다고 침묵은 답이 아니었을까. 아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해답은 바로 침묵이었다. 나는 내 안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분이 같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나 "그럼 계시다는 걸 믿고 말고요." 하고 순순히 긍정하게 되기까지는 나잇값도 한몫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은 그분한테로 가까이 가고 있음이다. 이제야 그분을 느낄 수가 있다. 산중 깊은 곳에 향기 짙은 난이 피어 있을 때, 눈으로 발견하기 전이라도 가까이 갈수록 난의 존재를 확신하며 이끌리게 되듯이.

코의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멀리서도 난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척에 가거나 겨우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난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이 알려지며 세간의 지탄을 받는 공인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대중들은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이 있습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생각하면 이 복음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로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법과 윤리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죄를 저지른 자를 쉽게 용서할 수 없는데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마태 5,39)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뺨을 친 군인에게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요한 18,23)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불의와 악의 현실 앞에서 그에 대한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고자 하시는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이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악의 현실은 단순히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의는 반드시 대항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비가 있다.”

또한 교회는 용서란 막연한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명백하고 객관적인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는 최선의 인내와 강력한 자제로, 필요하다면 법을 발동해서라도 원수 자신이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편,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배상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악의에 찬 증오와 복수심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지에서 나온 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되도록 이해력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명확해집니다. 용서의 척도는 무엇보다 먼저 원수의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를 뉘우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하려 애써야 합니다. 한편,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있을 경우 그가 회개하여 하느님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증오심이나 복수심 때문이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악에 물들어 있는 상대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사형 제도를 교회는 반대합니다. 또한 알폰소 성인은 다음의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정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복수심을 위장한 위선적 가면을 만든다.”

## 공지 사항

### 1. 예비신자 교리 안내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 예비자 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2월 8일(주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성당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 채널명: 캔버라 한인성당)

### 2.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재개

오늘부터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이 다시 시작됩니다. 나눔을 위한 준비와 뒷정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사 후 교육관에서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 3. 재의 수요일 미사 및 성지가지 수거 안내

- 재의 수요일 미사 : 2월 18일(수), 저녁 7시
- 집에 있는 성지가지를 성전 입구에 있는 수거함에 2월 15일(주일)까지 넣어 주세요.

### 4. 설 명절 주일미사 - '위령들을 위한 지향'

2월 15일(주일)에는 '조상님,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이웃 등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지향을 두고 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연도와 제대 앞 분향이 있습니다.

### 5. 여정 '시즌 8' 모임 신청 안내

이번 시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중 하나인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신자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캔버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2월 15일(주일)까지

- 시작 일시: 2월 17일(화), 저녁 7시 (Zoom 온라인)

### | 공동체 기도 지향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 <2월: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결코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 봉헌금 & 교무금 | (1월 17일 ~ 1월 30일)

봉헌금	\$257.50 (17일~23일)	\$225		
교무금	\$250 (17일~23일)	\$520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이지영	허준	서미숙	조성희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이번주 말씀 새기기 |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마르 5,34)
---